

(붙임)

사 진 자 료



문화재대관 국보 앱 (6개 분야)


국보 제 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고려(14세기)
흙벽에 채색
205.0×75.0cm
부석사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부석사를 창건하고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대사의 진영眞影을 모신 부석사 조사당의 안쪽 벽면에 범천梵天, 제석천帝釋天, 사천왕四天王을 6면으로 나누어 그린 벽화이다. 각각의 크기는 길이 205.0cm, 폭 75.0cm 정도이다. 지금은 벽화가 있는 벽면 전체를 그대로 분리하여 유리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조사당의 건립 연대는 건물 수리 시 발견된 묵서 墨畧書銘文에 1377년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벽화의 제작 연대 역시 이 시기를 상한 연대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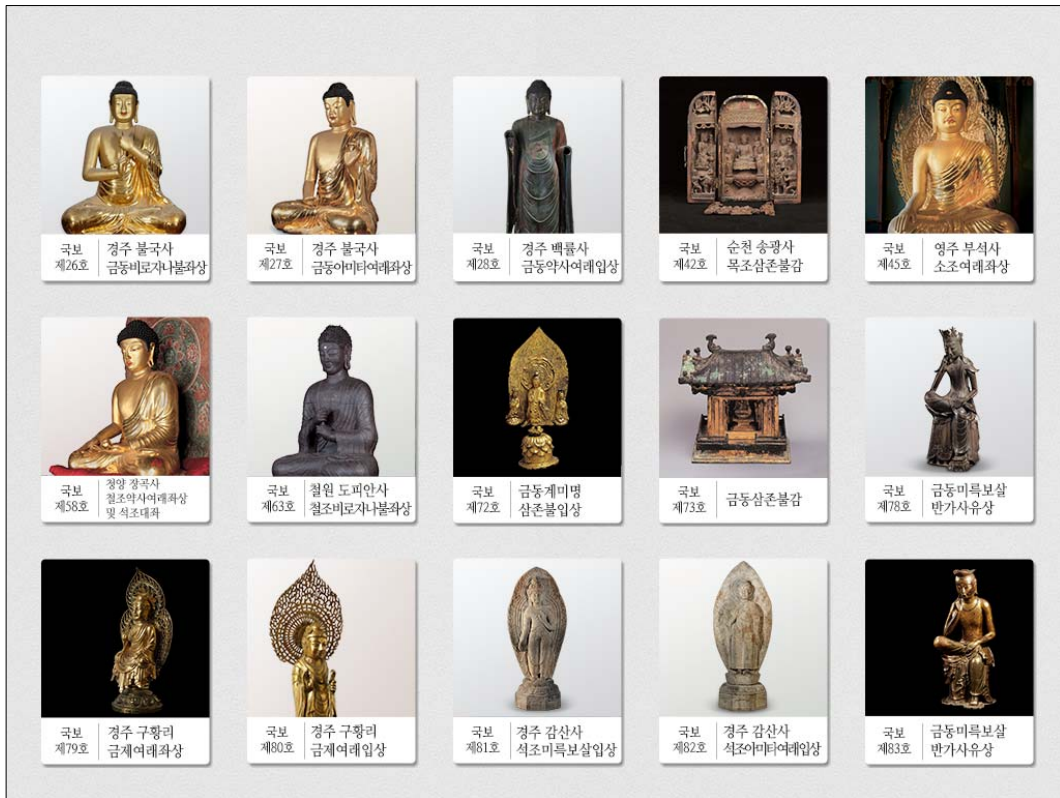
범천은 인도 바라문교에서 우주 창조신을 신격화한 신으로, 불교에서는 부처에 불법을 청하고 제석천과 함께 불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석천은 고대 인도의 베다 신화에서 유래한 신으로, '인드라'로 불렸으며, 불교에서는 도리천의 주인으로 수미산에서 머물며 범천과 더불어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천왕은 인도신화에서는 호세사왕護世四王으로 알려져 있고 불교에서는 수미산에서 제석천을 섬기며 사방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보통 사천왕상은 이 벽화에서처럼 갑주甲冑를 입은 무장상武將像으로 표현된다. 이렇듯 조사당이 의상대사의 초상화를 모신 건물이었던 만큼 이처럼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로 구성되어



개별문화재 관련동영상(회화류)



사진이미지 슬라이드 보기(회화류)



목차(조각류)

국보 제 27호

**경주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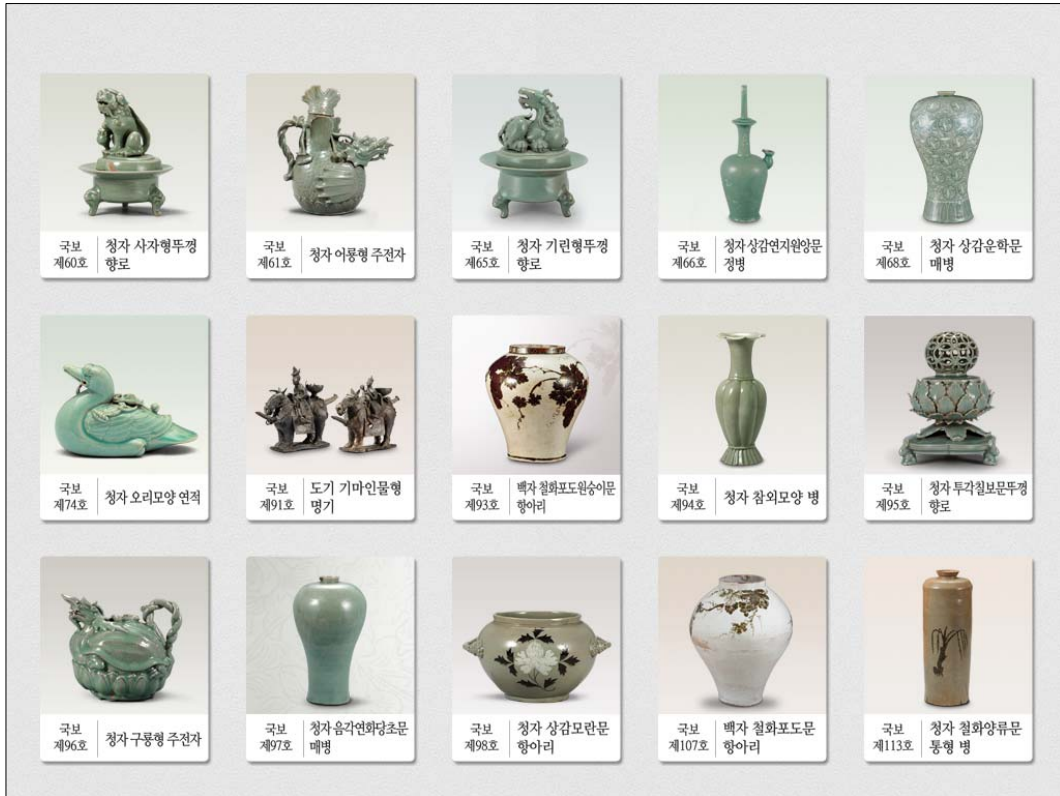
통일신라
금동
높이 188.0cm
불국사

불국사 극락전의 주존불인 금동아미타여래좌상 金銅阿彌陀如來坐像은 비로전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 '석굴암 본존불'(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등과 함께 신라 김씨 왕실 에 의해 제작된 사례이다.


188.0cm 크기의 극락전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좌상과 거의 비슷한 조각기법과 크기는 물론 같은 양식과 조형성을 보이고 있어 같은 시기, 같은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인은 왼손은 어깨높이로 올리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세에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아미타구품인 중하품중생인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다. 이는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드는 일반적인 아미타구품인과는 반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딱 벌어진 어깨와 당당한 가슴에서 오는 장대하 느낌이 강조된 작품으로 무릎 밑으로 흘러내리 자여스

개별문화재 설명(조각류)




목차(도자류)



국보 제 29호


성덕대왕신종





통일신라(771년)
구리
높이 366.0cm
종구 지름 227.0cm
국유(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은 한국 동종 가운데 가장 크면서도 맑고 웅장한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형태와 무늬를 지녀 일찍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창건 당시 종의 걸려 있던 절 이름을 따라 '봉덕사 종奉德寺鐘'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에밀레 종'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하기도 하다.

종이 있던 봉덕사는 폐사되어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경주 북천北川 남쪽의 남천리에 있던 성덕왕聖德王의 원찰顯刹로서 성덕왕이 증조부인 무열왕武烈王을 위해 창건하려다가 아들인 효성왕孝成王이 738년에 완공하였다고 전해진다. 이후 효성왕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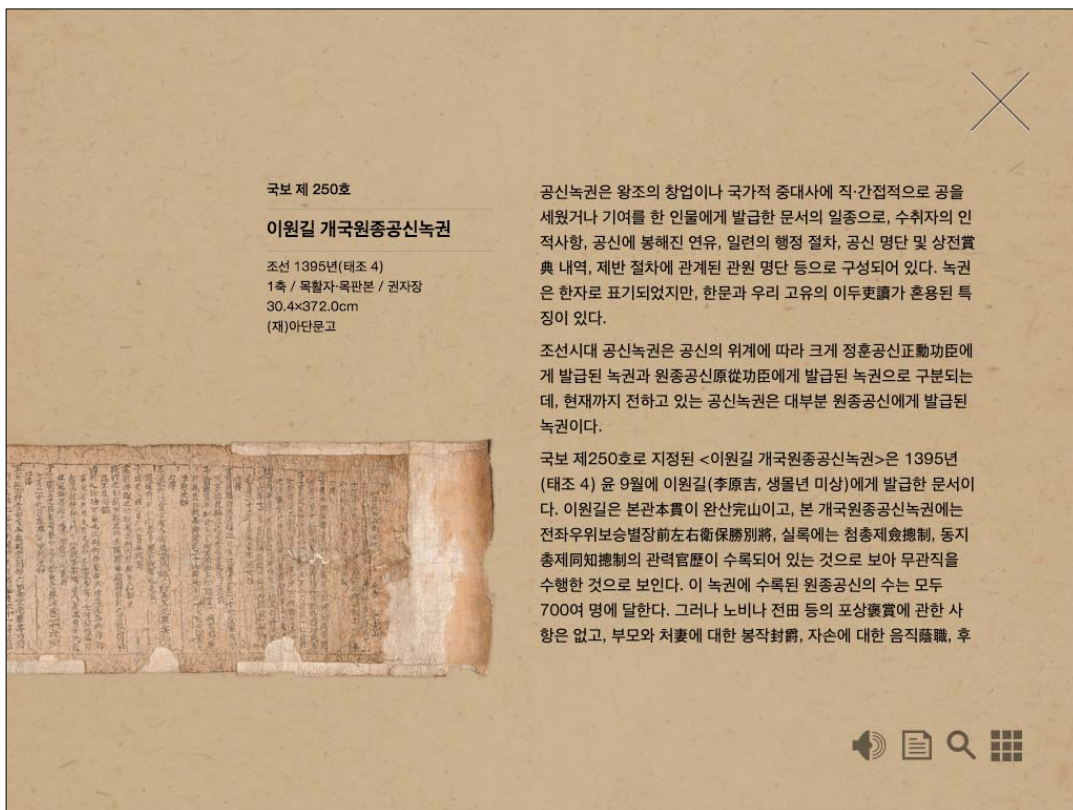


개별문화재 관련동영상(금속공예류)



개별문화재 표지(전적류)



개별문화재 설명(전적류)